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2007년 3월

“고객만족 통해 더욱 신뢰 받는 연구원”

개원 29주년 기념식, 3월 30일 대회의실에서 가져



개원 29주년을 맞아 우리 연구원은 고객만족을 통해 더욱 신뢰 받는 연구원이 될 것을 다짐했다.

개원 29주년을 맞아 우리 연구원은 3월 30일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도농이 공감하는 비전 제시

최정섭 원장은 개원 기념식에서 “힘을 하나로 모아 고객만족을 통해 연구원의 미래를 열자”고 역설했다.

기념사에서 최 원장은 “우리 연구원이 어엿한 청장년으로 성장한 것은 29년 동안 역대 원장님과, 선배,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말하며 연구원이 걸어온 길을 회상했다.

최 원장은 “농업·농촌은 세계화와 시장개방의 심화, 농촌인구의 노령화가 급진전 되는 등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농업과 농촌의 연구를 이끌어 갈 인재를 확보·육성하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의 고객만족을 위해 더욱 전문성을 갖고, 공감

하는 연구를 하여 고객에게 다가가는 연구원을 함께 만들어 가길 당부했다.

개원 29주년을 맞아 장기근속 직원과 연구과제에 대한 포상도 있었다. 20년 근속포상은 박시현, 김병률, 김영훈, 허장, 김경덕 연구위원, 주홍진 주임기능원, 김명숙 주임연구조원이 받았다. 10년 근속포상은 박준기, 김윤식, 박기환, 김태훈, 김용렬, 정은미, 김동원 부연구위원, 신봉철 전문연구원, 한천희 1급관리원, 김선경 주임연구조원이 받았다.

우수과제와 장기근속직원 포상

최우수과제상은 김창길 연구위원, 신용광 전문연구원, 김태영 연구원이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 연구로 수상했다. 우수과제상은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송미령 연구위원),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와 시장 활성화 방안’(이계임 연구위원), ‘농가등록제 도입에 관한 연구’(오내원

선임연구위원), ‘농업부문 FTA 추진전략 연구 및 구축’(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수상했다.

공로과제상은 ‘2006년도 동북아농정 연구포럼 운영 사업’(어명근 선임연구위원), ‘농업관측월보(과일)’(김경필 부연구위원), ‘맞춤형농정을 위한 농가유형 구분 연구’(김수석 부연구위원), ‘베트남 농촌개발 프로그램 1차 과정’(김용택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받았다.

우수협동연구과제상은 ‘농촌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 전략’(박시현 연구위원)이 받았다. 공로상은 김명환,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이 받았고, 한근수 전문연구원은 국무조정실장상을 수상했다.

개원 기념식에 이어 대회의실에서 40여 명의 연우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연우회 총회를 가졌다.

해외농업시리즈 발간



해외농업동향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것을 감안, 연구원은 해외농업시리즈를 기획하여 최근에 뉴질랜드와 네덜란드 농업 관련 자료집을 발간했다.

최근에 발간한 ‘뉴질랜드 농업동향과 농정개혁’에는 뉴질랜드의 농업개황과 부문별 농업동향·전망, 농정개혁과 시사점이 정리되어 있다. 두 번째로 발간한 ‘농업강국 네덜란드의 농업 교육’에는 전반적인 네덜란드 농업개황과 혁신을 추구하는 농업정책, 체계화된 농업교육이 소개되어 있다.

‘뉴질랜드 농업과 농정개혁’ KREI세미나



폴슨 뉴질랜드 농업특사를 초청, '뉴질랜드의 농업과 농정개혁'이란 주제로 KREI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원은 3월 15일 대회의실에서 알리스테어 폴슨(Alistair Polson) 뉴질랜드 농업특사를 초청, '뉴질랜드 농업과 농정개혁'이란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폴슨 특사는 1984년 정부가 농업에 대한 모든 지원 프로그램을 폐지한 뉴질랜드 농정개혁에 대해 설명했다. 농정개혁은 농업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보조금 폐지 이후 양 사육 두수는 절반으로 줄었으나 양고기 생산량은 줄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육질이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뉴질랜드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욱 혁신하여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인과 연계, 정부가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폴슨 특사는 "한국의 진취적인 농업인들이 생산 수출 관련 역량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뉴질랜드가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이질성과 국제무역’ 세미나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 무니사미 고프나스(Munisamy Gopinath) 교수는 3월 28일 중회의실에서 열린 KREI세미나에서 '기업 이질성과 국제무역'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고프나스 교수는 한 국가 내에서 수출을 위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국내 판매를 위해 생산하는 농가가 병존하는 현상의 원인이 기업의 이질성, 특히 생산성 차이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해 칠레농가 자료를 이용,

칠레농가의 수출참여 결정요인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금연프로그램 운영 “참여자 모두 금연 성공”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연구원은 지난해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금연프로그램을 운영, 17명이 참가해 모두 금연에 성공했다.

연구원은 흡연으로 인해 직원들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과 비흡연자들의 불평 해소를 위해 지난해 8월 17일에 5명을 대상으로 1차 금연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어 2차에 7명의 직원이, 3차에 4명의 직원이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했다.

6개월 동안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근에 동대문보건소에서 금연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보건소 금연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는 "금연프로그램에 참가한 직

원이 모두 금연에 성공한 것은 흔치 않은 사례라며 향후 성공 사례로 각 기관 금연 교육시 소개 하겠다"고 밝혔다.

농경토론회 개최

지난 3월 13일 중회의실에서 '농업부문 비전 2030 주요지표 전망'이란 주제로 농경토론회를 개최,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한 뒤 토론했다.

선임연구위원 어명근 박사 임명



4월 1일자로 선임 연구위원에 임명된 어명근 박사는 서울 시립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 미국 노던일리

노이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어명근 선임연구위원은 국제농업연구 전문가로 국제무역, 동북아농업, FTA 등의 연구를 하고 있다.

▣ 연구원 인사

△(승진) ■선임연구위원 어명근 ■연구위원 박문호 ■부연구위원 신용광, 장승동 ■전문연구원 서형석 ■초청전문연구원 김태영, 송성환, 이형우 ■책임기능원 윤여홍, 정예환

△(신규 임용) ■전문연구원 김정섭, 최병옥, 이명기 ■초청연구원 채상현, 김수림, 주현정, 유찬희

△(휴직) 전문연구원 민경택

△(전보) 전문연구원 서성천(농업구조 연구센터)

연구원 30년사 자료와 원고 수집

2008년 4월 1일로 연구원이 설립된지 30주년이 됩니다.

고이 간직해 온 추억의 창고를 열어 보세요.

사진과 육필원고 등 연구원 생활을 기념하고 추억할 만한 자료를 소장하고 계시면 연구원으로 보내 주세요.

유용하게 활용하고 돌려 드리겠습니다.

□ 수집자료: 육필원고, 연구원 관련 서류, 사진, 기념품, 각종 사료

□ 수집원고: 연구원 생활 추억담, 기타 30년사에 꼭 담았으면 하는 원고

□ 담당 간사: 정민국(02-3299-4263), 조태희(02-3299-4226)

* 자료와 원고를 제공하는 분께는 기념품과 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을 통해 연구원의 미래를 열자

최 정 섭 원장

1978년 「국립농업경제연구소」를 모태로 개원한 우리 연구원이 어언 29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연구원이 지금과 같이 어엿한 청장년으로 성장하게 된 데에는 그동안 남다른 애정을 갖고 연구원을 이끌어 주신 전임 원장님들의 수고가 컸습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연구원을 거쳐간 선배들, 현재 연구원에 근무하며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땀흘리는 직원 여러분 덕분이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 연구원의 오늘이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발전해 갈 것으로 믿습니다.

현안 해결과 비전 제시에 전력

오늘 20년 근속상을 받은 일곱 분과 10년 근속상을 받은 열 분, 우수과제상, 공로상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도농상생의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일류 연구기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는 연구품질의 제고를 위한 기반확충과 고객만족경영 체계 구축에 비중을 뒀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성과확산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체계를 정비하고 홈페이지 전면 개편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직원들의 급여와 근무환경,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연구원 30주년이 됩니다. 연구원사 편집 등 30주년 관련 기념사업도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설기관인 농림기술관리센터는 명실상부한 농림분야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어 마음이 든든합니다. 농촌정보문화센터도 2년도 안 되어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2007년 새로운 도약

을 준비하고 있어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주요 고객이며 연구대상인 농업과 농촌은 세계화와 시장개방 심화에 따른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어 후계영농인력이 부족하고, 농업생산력이 저하되는 등 갖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농업 외부에서 농업, 농촌, 농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비우호적인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과 농촌이 어려워질수록 우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갖가지 사안에 대해 해결책과 농업·농촌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29년 동안 농업정책과 농업경제 연구기관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사회적인 인지도를 더욱 높여가야 합니다. 연구원을 둘러싼 각종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농업인과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농업·농촌의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의식을 갖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실력있는 인재 확보와 육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합심·협력하여 위기를 기회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합심,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늘 주인의식을 갖고 개인과 연구원의 목표를 일치시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의식도 중요합니다. 가족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남을 위한 배려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 연구원이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도록 꾸준히 노력합시다.

고객만족경영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컨설팅을 받아 '전문성', '공감', '다가감'이란 고객가치를 도출해 냈습니

다. 먼저 우리는 전문가 집단으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객인 정부, 농업인, 농업인 단체, 학계가 공감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구한 결과를 고객에 맞게 가공하여 찾아가야 고객만족 경영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재 확보와 육성 위해 노력

연구원에 몸담고 있는 우리는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고객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고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연구원의 사활이 걸린 인재 확보와 육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장기 인력 수급 방향을 보완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선망하는 보람찬 일터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외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수요자를 찾아가 연구결과와 연구원을 알릴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현장을 중시하는 연구를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와 FTA가 추진되고 있고, DDA 농업협상도 재개되었습니다. 시장개방 확대의 파급영향 예측과 대책 연구를 강화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분명하게 담당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9주년을 맞아 신뢰와 도전, 비전, 희망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산적한 현안 해결은 물론 농업과 농촌의 비전을 제시하고 농업인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는 일에 앞장 섭시다. 내년 30주년에는 그동안 이룬 성과를 자축하고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R**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과제

최 세 균 선임연구위원

우여곡절 끝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었다.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사회에는 한·미 FTA와 관련된 수많은 논란이 있었다. 졸속추진에 충분한 검토, 손해 보는 협상 대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협상 등 이슈마다 첨예하게 반대와 찬성 논리가 부딪혀 왔다. 이제 협상은 끝났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 또한 적지 않다.

내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 많아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미 FTA는 17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농산물은 그 중 하나에 불과할 정도로 포괄 범위가 넓었던 만큼 다양한 분야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평가결과에 바탕을 둔 취약산업에 대한 대책 수립 그리고 국회 비준 문제 등은 풀기 어려운 과제에 속할 것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증과 평가이다. 한·미 FTA를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가 내준 것과 얻은 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다. 또한 'WTO의 다자간 협상과 같이 여러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협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양국 간에 얼마나 해결하였는가' 하는 관점에서 평가할 수도 있다. 물론 한·미 FTA를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를 가지고 평가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

상품교역이나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된 협상에서 내준 것과 얻은 것을 평가할 때 생산자 피해는 물론 소비자 잉여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경우 경제학적으로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손해라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특허권의 연장과 같이 그로

인한 피해 계층과 이익 계층이 우리나라에 동시에 존재하지 않고 상대국에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안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협상 결과의 평가는 사안별로 적절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농산물은 협상결과에 대한 손익을 따지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인 분야가 될 것이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한 차례 그리고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한 차례 등 두 번에 걸쳐 예비적으로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이 아닌 실체를 가지고 영향을 평가할 때이다. 주요 농산물에 대한 예상 피해규모는 우리 연구원이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10년 간 철폐한다고 가정했던 추정결과보다 작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분야 피해는 예상보다 작을 듯

이러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협상이 10년 간 관세철폐를 가정한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타결된 품목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 과일의 출하기에는 관세를 철폐하지 않도록 하는 계절관세 제도의 도입, 가공용과 식용을 분리하여 우리 농산물이 주로 식용으로 사용되는 특성을 살려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 관세 철폐 대신 일정량의 쿼터를 제공하는 방식 등을 얻어 낸 것은 피해를 줄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밖에도 피해가 예상되는 중요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긴급관세(특별구제조치, SG)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협상결과로 농업부문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완대책은 농업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적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수립·집행되어야

하는 데 여기에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면, 한·칠레 FTA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7년간 1조 2천억 원의 기금이 집행되고 있지만 기금규모와 집행방식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한·칠레 FTA 대책은 과수산업 한 분야에 국한된 것임에 비해 한·미 FTA 보완대책은 농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산고가 예상된다.

보완대책 완비는 비준의 전제조건

보완대책의 큰 줄기는 소득보전과 경쟁력제고가 될 것이다. 소득보전은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보상 성격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경쟁력제고 대책은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그리고 수입산과의 차별화에 대응한 품질경쟁력 등 두 가지 방식이 품목별, 농가 성격별, 지역별로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수의 국민적 지지가 없이는 국회 비준도 어렵다. 국회 비준은 국민적 의사의 표현이다. 한·미 FTA를 둘러싼 모든 쟁점은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미 FTA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는 점이 밝혀져야 비준과 이행에 들어갈 수 있다.

시장개방으로 식량안보, 환경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확실한 보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고 공산품의 수출 증대도 예상된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소비자 이익의 일부, 국가적 이익의 일부는 농업부문의 보완대책 수립에 이용될 수 있는 사회적 동의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R**



6자회담과 농업분야 협력 방안

김 영 훈 연구위원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 주변 정세는 한동안 긴장 국면에 돌입하였으나 담보 상태에 있던 대화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2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6자회담에서는 「9.19 공동성명(2005)」 이행을 위한 단계적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는 새로운 변화와 안정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2.13 합의」는 핵 시설의 폐쇄(shutdown) 및 불능화(disablement), 그리고 이에 대응한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지원, 북·미, 북·일 양자대화의 개시 등 주요 내용과 함께 두 가지 특징적인 내용을 더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각각의 합의 사항들에 대응하여 5개의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집중 논의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초기단계 이행은 60일 이내,” “실무그룹 회의 개최는 30일 이내” 등 시한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당사국들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 실무그룹 구성

이번 합의에서 구성하기로 한 5개 실무그룹 중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이하 경제협력 실무그룹)」은 몇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우선 한국이 이 실무그룹 회의 의장국을 수임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북 경제협력에 관한 우리의 구상을 6자회담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 지원 및 협력과 관련하여서도 주목된다. 합의문에는 경제협력 실무그룹의 1차 임무가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 지원과 인도지원을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비교적 단기적인 일이다. 향후 북한 핵 문제 진척에 따라 대북 경제협력 논의는 초기단계의 지원을 넘어 한층 더 넓은 지평, 즉, 본격적이며 포괄적인 경제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북 경제협력에 농업부문의 협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입장에서 경제협력 실무그룹의 활동이 주목된다. 단기적으로는 식량 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포괄적 경제협력이 추진된다면 농업부문의 협력이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농업협력 구상을 반영

대북 경제협력의 전략적 차원에서 농업부문의 지원과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경제회복과 발전을 위해서는 큰 틀에서의 정책 변화와 함께 잘 조직된 경제개발계획이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력이 합리적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이 경제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개혁과 개방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지원에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식량생산을 담당하는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다.

6자회담 경제협력 실무그룹의 대북 농업협력에 관한 향후 활동 방향과 구체적인 역할을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실무그룹의 활동이 6자회담의 진전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여러 나라가 참여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갈라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대북 농업 협력에 있어 일관된 목표를 가지더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경제협력 실무그룹의 의장국인 한국의 주도적 노력으로 헤쳐 나가야 한다. 우리는 남북관계 속에서 이미 대북 농업협력의 의지와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구상한 바 있다. 이러한 의지와 구상을 경제협력 실무그룹의 활동에 반영시켜야 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남북한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 온 농업협력 방향을 반추

해 볼 필요가 있다.

농업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본 조건은 제도 개선과 자본 확충이다. 그러나 북한농업은 오랜 동안 개혁 부진과 자본 부족 상태에 머물고 있다. 농업생산부문의 개혁 시도는 자본 부족 때문에, 농업복구개발을 위한 해외자본 확보 노력은 낮은 개혁 수준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부의 개혁 드라이브’와 ‘외부의 자본 지원’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이 두 과제가 동시에 이행되기는 어렵다. 인적·제도적으로 북한의 준비 상태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는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원을 유인하는 데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농업협력의 효율화 필요

6자회담 진전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것만큼, 경제협력 실무그룹의 논의와 협력활동을 통해 북한의 개혁을 유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대안을 찾을 수 없다면 중대한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농업의 회생과 발전은 지연될 수 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선도적 농업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이 형태의 농업 협력은 북한 지역농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본 지원을 요체로 하고 있으나, 협력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시행착오를 공유하고 궁극적으로 북한 지역농업의 개선 방향과 자립 모델을 구축해 본다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실무그룹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할 것이다. 대규모 물자지원을 결의하고 나라별로 책임량을 배분하는 것이 경제협력 실무그룹의 역할일 수 있지만, 지원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도 중요한 책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R**

일본, 청년 퇴직자 귀농지원

김태곤 연구위원

단카이 세대여, 고향으로 돌아오라! 이것은 일본의 지방자치 단체가 도시퇴직자에게 귀농을 호소하는 말이다. 단카이 세대란 전후 1차 베이비붐 세대를 말한다. 1947년에서 49년 사이에 출생한 자로 현재 800만 명 정도 존재하며, 인구 피라미드에서 커다란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서 '단카이'(團塊)라고 명명되었다. 이들이 금년부터 대량으로 퇴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일본 사회에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단카이 세대 2007년부터 대량 퇴직

단카이 세대는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에 기여한 동시에 성장의 혜택도 비교적 풍부하게 누렸다. 이들의 강점은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 다양한 경험과 고도의 기능을 축적하였다는 점이다. 한편 이들의 인생은 어린 시절에 과밀 교실에서, 수험 전쟁을 치루고 진학, 학내 분쟁 등의 혼돈사회를 체험한 후 취업, 일본의 경제성장을 지탱해온 산업 전사로서 역할을 해왔다. 2007년부터 드디어 제2 인생기를 맞이하게 것이다.

퇴직 이후의 선택 사항은 네 가지 정도일 것이다. 정든 도시에서 계속해서 노후를 보낼 것인지, 편의성을 갖춘 근교지역으로 이주할 것인지, 어메니티(쾌적성)를 찾아 자연이 풍부한 농촌지역으로 생활터전을 옮길 것인지, 아니면 정년귀농, 즉 고향으로 돌아가 농업에 종사할 것인지 등이다.

이들이 퇴직하게 되면 제조업 분야는 기술전승이 단절된다는 위기감에서 축적된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퇴직금 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자체는 귀농 또는 농촌이주와 연계하여 다양한 기대를 하고 있다.

논쟁도 치열하다. 핵심은 이들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단순히 취업기회를 제공하느냐, 아니면 정년연장 등 제도개정까지 단행하느냐를 둘러싼 것이다. 제도개정에 대해서는 특히 단카이 주니어세대와 대립관계가 선명하다. 단카이 주니어세대는 단카이 세대의 2세를 말한다. 1970년대 전반기 출생하여 90년대 중반 이후 사회에 진출하면서 어렵게 취업기회를 가지면서, 더구나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을 체험한 세대다.

이러한 세대는 단카이 세대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정도는 인정하지만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냉담하다. 이와 같은 논쟁 속에서도 일본 사회의 최근 동향을 보면, 이들이 가진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나 과소화가 진전된 지역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들의 귀농을 지원하여 지역농업 활성화를 시도하려는 의욕을 엿볼 수 있다.

현재 일본 대부분의 현에서 단카이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몇가지 사례를 보자. 후쿠시마현(福島縣)은 농기출신 청년귀농자를 대상으로 연수나 농업체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원예작물과 같은 비교적 초기비용이 적게 드는 작물을 도입, 농업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군마현(群馬縣)은 중산간 지역에 모델지구를 대상으로 취농기회를 제공하여 귀농을 촉진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아키다현(秋田縣)은 귀농자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이나 가공·유통 등을 교육하는 농업대학이나 인터넷학교 등을 운영하여 귀농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주까지는 유도하지 않지만 시민농원이나 도농교류 등으로 교류인구 확대를 기대하는 지역도 있다.


대상자들은 주로 농촌지역에서 겸업에 종사한 자이거나 도시지역에서 귀농한 자이다. 이들에게 농업부문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농업이 도시주민에 제공하는 새로운 역할이 될 수 있는 동시에, 농업에도 활력이 된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되, 어떤 활동을 기대할 것인가에 있다. 우선은 귀농을 하여 지역사회와 독립되지 않아야 한다. 귀농자는 개별경영으로 정착하기 보다는 '마을영농'과 같은 지연성 조직경영에 참가하는 편이 가공이나 유통, 판매면에서 능력 발휘가 용이하다. 이들에게 보수적인 농촌사회에서 지역사회의 변혁자 또는 지역농업의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농촌사회 변혁자로서의 역할 기대

단카이 세대에 대한 일본 사회의 동향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농촌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도시과밀과 농촌과소는 연동되어 있다. 소비자입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퇴직자는 농촌과소와 인재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농촌사회에 '새로운 피'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민의식조사 결과(2007. 2)에 의하면 도시주민 10명 중 7명(71.3%)이 퇴직이후 농촌거주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농촌에 정주하여 노후생활을 즐기는 그룹과 농업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가지고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진 그룹으로 나누어 질 것이다.

후자에 대해서는 이들이 가진 도시적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농업 진흥이나 지역사회 활성화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과소화·고령화 사회에서 농업·농촌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농촌생활의 '편의성' 보장과 '일자리' 제공 등과 같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지표로 본 참여정부의 농정성과와 과제

김 병 룰 연구위원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가 4년이 지나 5년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정책이 아직 진행중에 있고 정책효과가 충분히 실현될 만큼 시간이 지나지 않아 평가에 한계가 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참여정부의 농정 추진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고 일부 미흡한 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농정성과지표는 엄밀하게 따져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농업정책과 예산집행의 순수한 성과는 아니지만, 가격과 관련된 지표를 제외하고는 관련된 농업정책 추진의 종합적인 결과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정부 출범 직전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참여정부의 농정기조와 예산

참여정부 농정기조의 특징은 정책대상을 기존의 농업 중심에서 농업·식품·농촌으로 다양하게 확대한 것이다. 가격지정정책을 소득지원을 통한 수급조절과 경영안정정책으로 대체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예산 중에서 생산기반 예산 비중이 참여정부 직전인 2002년 32.5%에서 2007년에 16.7%로 줄어든 반면,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예산 비중이 같은 기간 16.5%에서 25.0%로 늘어났다. 특히 농가에 대한 직접보조를 위해 직접지불금을 2002년 4,289억 원에서 2006년 19,441억 원으로 4.5배나 증액하여 전체 예산 중 비중을 6.5%에서 23.6%로 대폭 확대하였다.

정주·휴양 공간으로서 농촌의 위상을 강화하고 농촌 어메니티(농촌다움)를 강조하기 위해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예산 비중을 2002년 8.1%에서 2007년 13.1%로 늘렸다.

성과지표로 중요한 것은 농가소득이다. 농가소득은 실질가격으로 2002년 2,696만 원에서 2006년 3,161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쌀소득보전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등 직접지불금으로 이전 수입이 늘어나고 농촌관광 등 농외소득원 다양화가 추진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이 2002년 역대 최저수준인 73%에서 2006년 78.2%로 회복되어 상대소득 격차가 완화되는 추세이다. 물론 농가소득 구성에서 이전수입 비율이 2002년 20.7%에서 2006년 31.5%로 확대되고 농업소득 비율이 46.1%에서 37.4%로 감소추세에 있어 정부보조 의존적인 구조로 변하고 있는 취약성이 있다.

수출증대도 빠뜨릴 수 없다. 개방화시대 농업의 활로를 개척하는 성장동력으로서 수출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출단지 지원, 수출업체 해외 마케팅 지원, 수출 물류비 지원 등 수출촉진대책을 추진하여 농림축산물 수출액이 2002년 16.4억 달러에서 2006년 23.0억 달러로 40% 증가하였다. 물론 세부적으로 볼 때 신선식품보다 가공품이 수출을 주도하여 신선식품 수출 확대 노력이

필요하고, 개방 확대로 수입증가가 수출증가에 비해 월등히 높아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참여정부의 주요 농정성과와 과제

참여정부의 중요한 성과는 소비자에게 안전, 안심 고품질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이력추적제 등 안전성관리와 인증제도를 비롯해 각종 표시제도를 실시하였다. 축산부문 조사료생산 확충사업, 가축계량사업, 계열화사업, 축사개선 등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전체 농산물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1.1%에서 2006년 6.2%로 늘고 그 사이 생산량이 4.7배, 재배면적이 10배, 재배 농가 수가 5.7배나 늘어났다. 또한 한우 1등급 이상 고급육 출현율도 35.2%에서 44.5%로 증가하였다.

영농규모화 측면에서는 농지매매, 농지임대차, 농지교환·분합 등 농지유통화를 위한 지원과 경영이양직불제를 실시하고 예산도 늘렸다. 그러나 고령농, 영세농에서 전업농으로 소유 이전을 통한 집중화가 미흡하여 3ha 이상 쌀 농가의 비중이 2002년 4.2%에서 2006년 5.3%로 미미한 증가를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 축산부문의 규모화, 전문화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가축사육두수에서 전업농이 사육하는 비중이 2005년 기준으로 한육우는 3.1%의 전업농이 전체 두수의 32.5%를 사육, 돼지는 24.0% 전업농이 전체 두수의 77.8%를 사육, 양계는 2.0%의 전업농이 94.3%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공제 가입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성도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2002년 18.3%에서 2006년 24.5%로, 가축공제 가입률이 10.6%에서 40.7%로 증가하였다.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확대하고 농촌지역 활성화, 농외소득원 증대를 위해 1사1촌 자매결연운동,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 테마마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로 인해 1사1촌 자매결연 수가 2004년 2,404건에서 2006년 14,498건으로 6배 증가하였고, 교류액도 43억 원에서 982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수는 2002년 18개소에서 2007년 274개소로 늘어나 방문객 수와 매출액이 각각 2003년 210천 명과 3,255백만 원에서 2006년 1,343천 명과 18,400백만 원으로 6배 이상이나 증가하였다.

농촌 활력 증진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업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농업인안전공제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율이 2002년 22%에서 2006년 50%로, 국민연금 1인당 연간 최대 지원액이 6만2천 원에서 25만9천 원으로 확대되었다. **R**

고객만족경영 컨설팅 결과 설명회 개최



연구원은 고객만족경영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3월 21일 대회의실에서 지난 해 12월 말부터 8주 동안 실시한 고객만족경영 컨설팅 결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고객만족경영 실태와 고객의 정의, 고객만족경영 비전, 8대 개선과제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고객관리 실행 지침'을 배포하고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컨설팅을 담당했던 (주)조인 컨설팅 이상민 대표가 '공공기관 고객만족경영 필요성과 접근 방식'이란 주제로 강의하여 고객 중심의 연구서비스 마인드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해부터 '고객만족경영'을 5대 경영목표 중 하나로 설정해 성과확산체계를 정비하고, 각종 연구결과물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연구원은 이번 컨설팅이 고객만족경영의 역량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객만족경영 실태 자체진단을 거쳐 실시한 이번 전문기관의 컨설팅은 원내외 고객과 기관장 인터뷰, 실무작업반 워크숍, 30여 건에 달하는 2차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고객만족경영 모델을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구원은 이번 고객만족경영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구 정보 서비스와 모니터링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연구진 동정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3월 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유무상통의 호혜적 남북경제협력 방안' 이

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동필 선임연구위원과 김용렬 부연구위원은 3월 13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국제농업발전기금(IFAD) 주최로 열린 워크숍에서 '한국의 농외소득 정책; 경험과 교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은 3월 30일 한국 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칠레 FTA 농업부문 영향'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최지현 선임연구위원은 3월 28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미

FTA 이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농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품질경쟁력 제고'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어명근 선임연구위원은 3월 30일 일본에서 열린 한·중·일 미나국제식품포럼에서 '동아시아 농산물 무역과 농업·농촌'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태곤 연구위원은 일본지역농업연구회가 3월 3일 교토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농업문제와 정책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허덕 연구위원은 3월 28일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농민사관학교 강의에서 '2007년 한우우 전망'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김창길 연구위원은 3월 19일 미국 농무부 컨퍼런스센터에서 OECD가 개최한 농업환경지표 개발에 관한 워크숍에서 '정책담당자의 농업환경지표에 대한 평가; 한국의 사례'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임송수 연구위원은 3월 27일 서울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서 'OECD 새로운 농업·농촌 비전과 농정 방향'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정민국 연구위원은 3월 3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한우산업 발전 심포지엄에서 'FTA 대비 한우산업 발전 대책'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제천시 보례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



농산업경제연구센터는 3월 23일 충북 제천시 보례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연구원 농산업경제연구센터는 3월 23일 충북 제천시 보례마을과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었다.

보례마을에서 가진 자매결연식에서 최지현 농산업경제연구센터장은 "분야별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례마을 이해극

작목반장은 "오늘 맺은 자매결연이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 제천 봉양면에 위치한 보례마을은 작목반을 중심으로 유기재배로

엽채류와 브로콜리를 생산하고, 유기채소를 재료로 빵과 국수 등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마을이다. 농산업경제연구센터는 앞으로 친환경농업과 농식품유통 분야에 정보제공과 함께 경영·마케팅을 컨설팅하고, 지역 특산물을 구매하는 등 다양한 교류를 가질 계획이다.